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

염미경**

< 차례 >

- I. 서론
-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 III.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 I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을 부부관계와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2007년과 2009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조사 결과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인 차이 중에서도 남녀불평등이나 가부장적 문화에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가정경제 관리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 다음으로 연애결혼이 아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체로 시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시집살이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밀착되어 있어 아내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회의를 갖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고부관계는

* 이 글은 2010년 10월 국제비교한국학회·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를 맡아준 장승심 선생님과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초고를 읽고 세밀한 논평을 해주신 논평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한국의 일반 가족과 비슷하지만 고부 갈등 요인이 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그리고 각자가 지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일반 가족에서는 한국의 전통가족에 비해 고부 간 불만 강도가 낮고 가정사를 부부간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는데, 그렇다고 제주도의 여성결혼 이민자가족에서 이러한 제주도의 일반 가족과 비슷한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글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제주도과 다른 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을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가족관계, 고부관계, 부부관계, 가부장적 가족문화

I. 서론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상호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노동이나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의 증가를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¹⁾은 1,139,283명으로, 주

1) 혼인이나 기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종전에는 '이주민'이라고 하였으나 2008년 5월 이후부터 '외국인주민'으로 명칭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주민의 범주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이혼 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도 외국인주민에 포함시켰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주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2010).

한국에서 결혼이주는 199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시의 저소득근로자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 범주가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²⁾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정책을 마련해왔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부처에서는 결혼이민자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³⁾, 최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교육문제와 이들의 사회적 통합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면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 이들을 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충실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문화사회는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사회이다.” 좀 더 세분화된 정의를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는 객관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인종·다민족사회이고, 한국에서 외국인의 증가라는 객관적 현상에 대해 여러 나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이며 상호존중적인 정책이나 태도, 문화로의 변화, 즉 사회문화적인 내재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문화사회라는 것이다(김은미·김지현, 2008).
- 3)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주의 전 단계와 과정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결혼이민자 본인에게 치중되어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지역별, 출신국가별 다양한 욕구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법’일 뿐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 4) 정부의 주요 법제과정을 보면, 2006년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2006년 10월

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증가하였다.

다문화정책 추진방식이 정부 주도라는 것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은 한국의 농어촌가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민정, 2007: 218쪽).⁵⁾ 특히, 2000년대 들어 나타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간 국제결혼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아시아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자신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열악한 문화자본으로 인해 자국의 여성들과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들은 외국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며, 외국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은 모국의 경제적인 열악함과 자국 남성들의 경제적 무능함에 좌절하여 보다 잘사는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Jones and Shen, 2008: 20쪽; 이재경, 2009: 186쪽).⁶⁾ 이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사회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 2007년 5월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과 ‘국적법’ 개정, 2008년 3월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사회문화지원법’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부처 법률이 4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조례가 무려 200개가 넘고, 예산은 2009년 1053억 원, 2010년 117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60여개에 달하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전국에 300개가 넘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가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하고 있다. 최근 부처별 지역별 기관별로 제각각인 다문화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동아일보> 2011년 2월 8일자, “압축성장식 다문화정책, 장점은 짧고 단점은 길다.”).

5)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표한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정책 현황’에 의하면 2007년에는 3개도와 60여개의 시·군(市·郡)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결혼중매사업을 시행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도 26곳에 이른다. 지원비용은 남성 1인당 200만원에서 800만원이며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모두 28억 4천8백만 원에 달한다(<한겨레신문> 2007년 6월 8일자).

6) 이와 관련해 국제결혼의 경제적 동기만을 강조하거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나 매매혼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종적, 계급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므로 경

에서는 새로운 가족형태로 다문화가족⁷⁾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다문화 현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시민단체 모두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았으며, 그 양상이나 상황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한국가족과 특징을 달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는 제주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다.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1. 논의의 배경과 연구쟁점

가족은 사회구조와 같은 외부환경에 좌우되는 사회제도인 동시에 개인의 욕구 충족은 물론 정서적 교감과 친밀성으로 외부의 자극과 긴장을 해소하는 사적 공간이다. 가족의 모습은 사회·인구학적 변화 추세가 확실한 만큼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대체로 한국 여성과 남성은 가족에 대해 서로 다른 관계에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성(gender) 역할과 정체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족은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을

계해야 한다(So, 2006). 외국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한국남성들의 경우, 단순히 시부모 봉양이나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했다고 국제결혼의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것도 문제다(이재경, 2009: 198쪽).

7)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국제결혼가족', '결혼이주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하게 지칭해오다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다문화가족'으로 지칭해오고 있다.

통해 여성이 남편의 부계가족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한국 여성에게 아내·어머니와 며느리 역할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은 한국의 부계혈통과 성별분업에 기반해 가족을 유지해야만 하는 한국 남성의 필요와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외국인 여성의 동기가 맞아 떨어져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의 가족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 특히, 부계혈통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필리핀 등에서 시집온 외국인 여성은 한국 시어머니의 위치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김민정, 2007: 213쪽).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빈곤 국가 출신이며 일반 가족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불평등한 부부관계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가족 문화와 배우자 가족의 문화가 바로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론, 가족 상호작용, 가족 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등 적응 관련 문제를 겪는다(Chang & Myers, 2003). 또한 서로 다른 개인적 가치, 삶의 방식, 언어, 문화, 기후 등 다문화적 충격에 더하여 출산과 양육 문제를 겪으면서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Chou 외, 2006). 실제로 여러 연구들(김영란, 2006; 설동훈 외, 2005; 최금해, 2006)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서로 다른 가정의례와 예의범절 등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부모나 남편과 갈등 상황에 빠지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경제적 문제, 자녀출산과 양육문제, 심리 및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우 이러한 일반 가족이 처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언어소통의 문제와 상대방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결혼 후 가족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강기정·변미희, 2009). 즉 한국 남성과 결

혼한 외국인 아내,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국가에서 문화와 언어를 접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 결혼생활이나 가족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결혼을 한 아내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물론, '순종적인 아내를 얻어 가부장제적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남편과 자국에서의 남녀차별적인 환경에서 해방되고픈 희망을 갖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아내'와 같은 부부 간 성별 기대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한국남성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부부관계의 계급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정천석·강기정, 2008; 변미희·강기정, 2010: 128쪽).

한편, 가족관계는 대체로 결혼으로 결합된 부부관계, 혈연관계로 연결된 부모자녀관계, 혈연을 공유하는 형제자매관계, 결혼으로 시작되는 고부관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부부관계와 고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에서 이 글이 취한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에서 핵심은 남편과의 관계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 부부관계는 한국국민이라는 위치와 경제력 대(對) 결혼에 의한 이주와 가사노동 수행이 교환되는 암묵적인 계약에 기반한다. 남편이 국민의 지위를 기반으로 외국인 아내에게 특정한 노동과 감정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부부관계에 특징적인 구조적 불평등이다. 이에 외국인 아내인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모국에서의 방식을 주장하거나 다른 관계를 강화하거나 사랑과 책임감을 내세워 보상체계를 고안해야할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부계 친족과의 유대가 강조되고 위계질서가 분명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영향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개

인의 자발적 선택의 폭과 양이 커졌으며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가족 관계가 중시되고 부부 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하는 등 가족 형태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이효선, 2009: 165-166; 양옥경, 2000; 최셋별·이명진·김재은, 2003). 이처럼 한국사회는 가부장제적 가족구조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 구조로 변하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 전통적으로는 효(孝) 사상으로 다스려졌던 고부 관계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는 며느리들이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인내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더 이상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박소영, 2010: 154쪽).

다음으로, 가족관계 중에서 고부관계는 혈연의 관계가 없는 타인끼리 한 남성을 매개로 하여 법적, 인위적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가장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관계 중의 하나이다(김밀양, 2004: 174쪽; Bryant, and Conger, 1999; 김진숙·권석만, 2003). 한국의 고부관계는 여성을 타성(他姓)의 부계혈통집단에 편입시키는 부계친족체계의 핵심 부분인 동시에, 부계가족에서 연장자로서 여성의 권위가 보장되는 관계이기도 하다. 고부관계가 갈등이 많은 관계라는 점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이나 서양, 모두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Bryant, Conger, and Meehan, 2001; Willson et al., 2003; 김밀양, 2004). 그러나 고부갈등은 서구사회에서보다 동양사회가 더 심한데 그 이유는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가족중심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Lee, and Mjelde-Mossey, 2004; Huang, 2005). 한국사회에서는 자녀부부가 부모와 분가하여 사는 경우에도 가족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고부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이영분·양영심, 1999).

그러면, 제주도 가족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그들의 배우자나 그 가족관계

속에 위치시켜, 그들이 결혼과 이주를 통해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 글이 제주도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주도 일반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에 비추어 설명해보고자 한다.⁸⁾

이와 관련해 이혜경(2009)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한국가족의 특성, 즉 일반 가족에 비해 시부모와의 동거비중이 높은 전통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의 분석과 관련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연구가 정기선(2008)의 연구이다. 정기선(2008)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구분해 한국으로의 이주 특성을 파악해내고 이러한 특성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정과 한국으로의 이주경험,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욕구에서의 출신국가별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⁹⁾

이들 연구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글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8) '제주도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는 한국의 전통가족과 달리, 분가주의(分家主義), 부부가족 형태를 띠며, 따라서 부부간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다(김혜숙, 1999; 이창기, 1999).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주도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도 나타나는가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글이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사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려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양상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분가주의 등과 같은 '제주도 가족'의 특징은 과거 제주여성과 같이 가족의 경제를 완전하게 책임지는 상황, 즉 제주여성의 노동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9) 정기선(2008)은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따른 이민생활적응에서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추이와 지역별 거주현황, 2006년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810명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과정과 한국생활적응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을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병렬시켜 살펴보는 방식으로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결혼으로 편입된 남편의 가족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치는 훨씬 열악할 가능성이 있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일반 가족에 비해 시부모와의 동거비중이 높은 전통가족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이혜경, 2009: 153쪽). 김희주(2008)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유형은 도시에 거주할수록 부부나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고 부부나 그 자녀 외에도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도 전체의 14% 정도나 되며, 도시에 비해 농촌에 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주목해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 양상을 살펴본다.

2. 연구대상과 방법

2009년 말 현재 제주도의 이주민은 42개국 7,343명¹⁰⁾으로 주민등록 인구(562,663명)의 1.3%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대비 5.7%(3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이주민 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가 3,096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42.2%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이 1,076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4.7%, 필리핀이 507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6.9%, 미국 448명으로 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면

10)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2,56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9%, 결혼이민자는 1,16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8%, 유학생은 8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7%, 재외동포는 252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 기타는 66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1%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1,29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7.6%를 차지했다.

제주시에 5,195명으로 70.9%, 서귀포시에 2,148명으로 29.3%가 거주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10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2010. 2. 1-3. 31)).

제주도의 다문화정책은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구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제주도에서는 200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과 행정혜택 등에 있어 거주 외국인을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게 되어 있다.¹¹⁾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고층·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7년 4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¹²⁾하였고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1주일간 다문화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 2007)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2010) 자료, 그리고 2007년 말 유네스코 동아시아지역 사무소의 지원으로 수행된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11)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정책 지원 근거로는 ‘거주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이주민의 증가와 문화다양성의 가시화에 따른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의 부적응이나 사회적 편견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12) 제주도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제주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미혼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자료를 사용하였다(염미경·김규리, 2008). 심층인터뷰의 경우 제주이주민센터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¹³⁾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중국 한족 5명, 중국조선족 2명, 필리핀 4명, 베트남 2명, 몽골 2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층인터뷰대상자 선정이나 수집된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서 의도치 않게 필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이 글의 자료수집방법 자체에서 오는 한계라는 것을 밝혀둔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00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글의 심층인터뷰대상자로 선정된 여성결혼이민자들¹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심층인터뷰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출신국가	나이	학력	배우자 연령	배우자직업	결혼경로
1	중국	41	중졸	43	농업인	아는 사람 소개
2	중국	26	대졸	32	중장비기사	인터넷채팅으로 연애결혼
3	중국	28	중졸	37	공무원	친구 소개
4	중국	28	대졸	35	택배기사	친구 소개
5	중국	27	중졸	40	아파트관리원	결혼중개업체 통해
6	중국	28	중졸	40	자동차 정비사	결혼중개업체 통해
7	필리핀	27	고졸	37	고물처리상	아는 사람 소개

13) 눈덩이표집 혹은 누적표본추출은 상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러 보내면, 내려가면서 눈이 점점 뭉쳐서 커지는 것에 비유한 표집방법으로, 눈덩이표집은 조사자가 표본사례의 소재를 잘 모를 때 처음 접근이 가능한 소수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된 사례의 협조를 얻어 이들로부터 추가적 사례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표집방법이다.

14) 이 글에서는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기족 전반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대상자 전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구체적인 가족관계 양상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자들 중 연번 1-8의 결혼이민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8	몽골	29	대학중퇴	44	회사원	직장업무를 통해 연애결혼
9	중국	32	대졸	39	자동차 정비사	아는 사람 소개
10	필리핀	35	고교중퇴	42	환경미화원	통일교 통해
11	필리핀	25	고졸	37	공무원	결혼중개업체 통해
12	필리핀	26	대학중퇴	47	개인택시기사	결혼중개업체 통해
13	베트남	31	초교 졸	44	유흥업소 가수	친구 소개
14	베트남	22	고졸	37	컴퓨터수리/판매	친지 소개
15	몽골	32	대졸	41	건설회사 회사원	연애결혼

심층인터뷰 대상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동기 및 경로를 보면, 조사 대상자 15명 중 4명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1명이 통일교를 통해, 7명이 친구나 친지 및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인터넷채팅이나 직장업무를 통해 연애결혼 하였다. 재혼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에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10살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다양한데, 대졸 또는 대학중퇴는 6명, 고졸 또는 고교중퇴는 4명이다. 남편의 직업은 농업인만이 아니라 중장비기사, 서비스업 종사자, 컴퓨터 수리업, 자동차 정비사, 공무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하다.

Ⅲ.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1. 가족 구성의 특징

제주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2007년 전수조사 결과¹⁵⁾에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구성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유형과 경로를 살펴보면, 응답자 49.3%인 345명이 이는 사람을 통해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는 25.9%인 183명, 직접 연애를 통해 결혼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인 105명, 종교단체 주선으로 결혼한 경우는 8.0%인 5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추세에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사람을 통해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이미 결혼한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연결망을 통해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경우가 많다(<표 2> 참조).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결혼경로 및 유형

국적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는 사람의 소개	종교단체의 소개	행정기관의 주선	직접만남 및 연애	기타	합계
중국	36(10.3)	241(68.6)	0	1(0.3)	71(20.2)	2(0.6)	351(100.0)
베트남	119(68.4)	49(28.2)	0	0	3(1.7)	3(1.7)	174(100.0)
필리핀	20(22.5)	35(39.3)	28(31.5)	0	5(5.6)	1(1.1)	89(100.0)
일본	0	7(13.7)	26(51.0)	1(2.0)	15(29.4)	2(3.9)	51(100.0)
기타	8(22.9)	13(37.1)	2(5.7)	0	11(31.4)	1(2.9)	35(100.0)
계	183(25.9)	345(49.3)	56(8.0)	2(0.3)	105(15.0)	9(1.3)	700(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79쪽)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이는 사람 소개를 통한 결혼이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한국의 신랑과 송출국 신부를 소개해주고 서류 수속을 수행

15) 이 실태조사는 2007년 8월부터 9월 20일까지 1,009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실시되는 조사다.

하는 업무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해당국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 통로가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먼저 결혼한 친구나 친척들의 중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였을 때보다 훨씬 안정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자매들이 결혼을 하는 사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의 조직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남인숙·장혼성, 2009: 17쪽).

종교를 통한 국제결혼은 주로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도하였으며 필리핀과 일본 여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필리핀에서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종교라기보다는 이상적 가족과 세계평화를 위한 운동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기 바라는 남성들은 신앙심과 상관없이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통일교에 가입하고 결혼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남인숙·장혼성, 2009: 14-15쪽).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필리핀과 일본 여성이 대부분이다.

한편,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동기와 결혼경로를 교차 분석한 <표 3>을 보면 ‘직접 만남’ 즉 ‘남편을 사랑해서/호감이 가서’ 결혼을 택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90명이었고, ‘이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을 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06명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접 만남’보다는 ‘주변의 소개’가 결혼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결혼중개업체나 이는 사람 소개로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94.7%를 차지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경로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결혼동기와 결혼경로의 교차 비교

구 분	결혼경로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아는 사람 소개	종교 단체 소개	행정 기관 주선	직접 만남 (연애)	기타	전 체	
결 혼 동 기	잡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69(40.6)	55(17.0)	4(7.1)	1(50.0)	2(1.9)	0	131(17.0)
	남편을 사랑해서/호감이 가서	50(29.4)	206(63.8)	11(19.6)	1(50.0)	90(86.5)	8(88.9)	366(55.1)
	종교적인 이유	0	0	37(66.1)	0	1(1.0)	0	38(5.7)
	본국의 경제적 지원 위해	23(13.5)	12(3.8)	2(3.6)	0	2(1.9)	0	39(5.9)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4(2.4)	3(0.9)	1(1.8)	0	0	0	8(1.2)
	가족이나 친지 권유로	2(1.2)	5(1.5)	0	0	0	0	7(1.1)
	기타	22(12.9)	42(13.0)	1(1.8)	0	9(8.7)	1(11.1)	75(11.3)
전 체	180(100)	323(100)	56(100)	2(100)	104(100)	9(100)	664(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83쪽)

다음으로 2007년 제주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¹⁶⁾ 결과를 중심으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와 결혼경로를 살펴보면¹⁷⁾, 2007년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초혼이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혼인 경우 18.1%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남성 10명 가운데 2명이 재혼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에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전체의 97.1%를 차지하였고 이혼 1.4%, 사별

16) 이 실태조사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1,44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족갈등은 물론 가족의 경제상태(소득, 지출, 자산 등), 사회통합도 측정에 관한 사항(국적별, 지역별, 예산행정 투입대비 사회적응도 지표분석 등,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잠재적 직업능력 분석 및 취업지원 상황 등 크게 4가지 영역이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17) 혼인상태와 결혼경로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9년 조사에서 척도를 달리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였다.

1.0%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41-42쪽). 결혼경로를 살펴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배우자인 한국 남성을 만나는 경로로 응답자의 48.8%가 이는 사람을 통해 결혼을 하였다고 응답했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25.9%, 직접 연애 14.9%, 종교단체 주선 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40.3%가 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가 20.6%, 친구 및 동료의 소개 18.6%,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우가 7.9%, 종교기관을 통해 4.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중개업체의 증가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80쪽).

한편, 제주도의 전형적인 가족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분가(分家)제도이다.¹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도 분가제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이 글의 심층인터뷰대상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4명이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 결혼중개업체나 이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체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동기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동기('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등)와 개인적 동기('남편을 사랑해서'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동기와 방법은 배우자를 결혼당사자가 선택하는 연애혼과 가족이나 친지들의 소개에 의한 중매혼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제결혼 역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배우자의 배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다른 지역의 결혼이민자 실태조사의 경우 결혼동기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에 대한

18) 제주도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8)을 참조바람.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동기로 ‘남편을 사랑해서/호감이 가서’가 51.8%로 높게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2007: 83쪽; 2010: 81쪽).

이러한 측면은 이 글의 심층인터뷰 대상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결혼 중개업체나 친구 혹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이주해 왔더라도 남편을 사랑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했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가족의 현실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이는 모든 결혼을 경제적 합리성과 정서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한국, 타이완, 일본, 싱가포르 남성들과 결혼하여 남편의 나라로 이주하려는 동기의 이면에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 직업을 갖고 경제력을 갖추고 싶은 욕망,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기대 등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자 하는 여성의 행위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한 이재경(2009)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주를 선택한 현실적인 동기는 친정가족의 경제적 보탬을 주고자 하는 가족전략의 의미와 일을 하고 싶다는 경제활동의 욕구에 있지만(김민정 외, 2006; Lu, 2005; 이재경, 2009) 결혼이주의 의미를 그것으로만 환원시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동기를 단지 경제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키기보다는, 이들이 국제결혼과 이주를 선택해 남편이나 남편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9) 이 글의 심층인터뷰대상자인 중국 산둥 출신의 천권성(가명, 28세)씨는 중국에서 신문방송 관련 대학을 졸업한 뒤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친구소개로 택배기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정한 경우이다. 남편과 결혼을 결정할 때 가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혼한 뒤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고 하였다(심층인터뷰 결과).

2.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양상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2007년과 2009년의 조사결과(제주특별자치도, 2007, 2010)를 보면, 제주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7년 조사에서 매우 만족 12.2%, 만족 58.9%로, 2009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22.6%, 만족 37.0%로 나타났다.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2007년 7.7%, 2009년 4.7%였는데, 이러한 불만족의 원인은 경제적 불만족이 36.1%로 가장 높고²⁰⁾, 의사소통의 어려움 25.6%, 시댁식구·남편 등과의 갈등 17.4% 순이었다. 의사소통이나 시댁식구/남편과의 갈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²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7: 113-119쪽).

이러한 양상은 이 글의 심층인터뷰 대상 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조사한 여성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남편 및 시댁식구와의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결혼이란 남녀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서로 자라온 가문에 대한 풍습과 생활방식 등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20) 2007년 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원 이상~200만원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8.9%, 100만원 미만 17.3%였다. 2009년 조사에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7.4%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1.9%, 50만원 미만 4.9%로 나타났는데, 세금 공제 이전 월 소득에 있어 가구 소득 역시 50-1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계경제에서 소득구조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63-64쪽).

21) 이와 관련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상 36.7%, 중 35.1%, 하 26.6%로 나타났고, 2009년 역시 한국어 말하기에서 보통 37.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읽기 실력 '보통 35.9%, 잘한다 18.4%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쓰기의 경우 보통 35.2%, 서툰 편 20.4%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49쪽).

데 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낮은 사회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박미정·엄명용, 2009: 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핵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가족의 지지다(장지혜, 2007; 최경숙, 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생활 경험을 부부관계와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관계의 양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부부관계에 혼란스러워했고 이를 모국의 남녀평등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선 남자가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많이 봐주고, 많이 포용해 주는 거예요. 중국에선 남자가 집안일 많이 해요. 얘기 보는 것도 남자가 잘 봐줘요. 집안일도 서로 같이 해요. 시간이 되면 같이 해요. 중국에서 ‘남편은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나만 사랑해 주면 되요. 중국에서는 여자는 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남편은 자기가 맛있었던 것을 사다줘요. 그리고 일도 많이 도와주고 해요. 우리 형부가 지금 그렇게 해요. 우리 언니들은 형부들이 다 잘 해줘요. 나만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 너무 피곤해요. 나도 이제까지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깐.(심층인터뷰대상자 1).

중국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집안일은 많이 도와주고 남자, 여자와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잖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남편이 집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 사람도 노력해서 좀 바뀌었고, 저도 노력해서 좀 괜찮아요.(심층인터뷰대상자 2).

친구소개로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해서 한국에 오는 게 전혀 망설여지지는 않았어요. (친정) 집에서는 많이... (우리 결혼을) 완전 반대 했어요. 그래도 내가 오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허락해주셨어요. 부모님이 평소에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세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은 이렇더라, 술 많이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결정을 한다면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특별히 (한국어나 한국에 관해) 공부 한 건 없어요. 여기 와서 알았는데, 많이 힘들어요. ...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한국 남자들은 보기에 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개 관용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무심한 것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깐 완전 달라졌어요.(심층인터뷰대상자 4).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인 차이 중에서도 남녀불평등이나 가부장적 문화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 주부가 되었지만 가정경제 관리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즉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돈을 맡기지 못했으며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직접 생활비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해요. 통장은 처음에는 안 맡겼다가 남편이 다른 사람 돈 빌려주고 그래서...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맡기도 했어요. 생활비를 남편이 주기는 했어요. 나 혼자 (물품 등) 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샀어요. 그리고 남편이 카드로 계산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편했어요.(심층인터뷰대상자 1).

경제권은 지금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돈을 타서 써요. 그 돈도 남편이 잘 안 줘요. 사람들이 ‘애기 이쁘다.’고 하면서 주는 돈 같은

거는 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차비나 용돈으로 쓸 수 있어요. 남편은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돈을 주기는 해요. 같이 일하면 20만원, 30만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만원밖에 안 줘요. 자기가 돈 다 갖고 있고 돈을 못 만지게 해요. 통장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을 남편한테 줄 때도 나한테는 말하지 않아요.(심층인터뷰대상자 6).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회를 배우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나 가족이 자신들의 모국 언어나 음식,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는 서운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국에서 살던 거랑 많이 달라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구요. 먹는 건 괜찮아요. 중국에 한국 친구들 있어요. 말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 한국말로 해요. 남편은 중국말 하나도 못해요. 가족들 과도 한국말로 대화해요. 손짓 발짓 하면서...(심층인터뷰대상자 3).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은 중국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맘에 안 들면 ‘너희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느냐?’ 하고 말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 나는 돈을 아끼려고 옷도 5천 원짜리 사서 입는데, 그런 것도 잘 몰라주고 그래요.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머리도 안 감는다면서?’ 이런 말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상품이 안 좋다고 말해요. 중국에서는 농사지를 때 농약 많이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교사 하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농약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외국 사람들의 착각이에요.(심층인터뷰대상자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 적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 해결의 책임은 현실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이 떠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권력은 주로 당사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국제결혼에서 부부관계는 국가위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의한 부부관계의 불평등구조는 국가위계에 따라 한국식의 젠더 위계나 성별분업이 지지되는 방식으로 구축되게 된다. 또한 부부권력은 한 사회의 전반적 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나 가정생활 기여도에 관계없이 여전히 남편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조정문·장상희, 2009: 203-204쪽).

다음은 고부관계의 양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시댁식구,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한국의 일반적 주부들의 가장 높은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글의 심층인터뷰 대상 여성결혼이민자들 사례에서 보면 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시집살이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밀착되어 아내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으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에 2004년도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결혼식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랑 함께 살아요. ...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 3년 넘었어요. 내가 약혼을 해서 한 달 만에 그랬어요. 간암 판정이 난거예요. 시어머니는 다리 아파서 병원에 매일 다녀요. 나도... 아픈데... 시어머니도 아프고, 시아버지도 아프고 해서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시아버지 병수발도 해야 하고, 어쩔 때는 시어머니 위로도 해 드려야 하고... 시어머니는 내가 시어머니 도와 드리고 시아버지 병수발

해 드리고 그러는 거에 대해 ...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심충인
 인터뷰대상자 2).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대개 좋아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너
 는 내 딸이다, 진짜 잘 해주겠다.’ 해서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전에 한번은 남편이 술을 마셔서 (저를) 때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말리지 않으세요. ... 지금 제주도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살아요. 시아버지는 없어요. ... 시어머니랑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하더라도
 ‘빨래 널어라’, ‘설거지해라’, 간단한 이정도만... 제가 말을 정확히 할
 줄 모르니깐 시어머니가 아예 말을 잘 안하세요. ... 한국 시어머니들은 한
 국며느리랑 외국며느리랑 다르게 생각하나요?! 집에 우유가 있었는데 시어
 머니가 남편한테는 제일 큰 컵에 우유를 따라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작은
 컵에 따라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개 간식이나 사
 료는 잘 사다주는데, 저한테는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간식을
 사다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첫 번째, 남편이 두 번째,
 강아지가 세 번째, ○○(내)가 네 번째예요. 왜냐면 강아지가 저보다 더 집
 에 오래 있었어요. 전 이제 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봐요. ...
 남편은 (제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 한번은 남
 편이 김밥을 해 준다고 남편이랑 시장에 가서 김밥재료랑 물 네 병을 사가
 지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고 했어요.(심충인인터뷰대상자 4).

시부모님이 나한테 잘 해주세요. 처음에 한번 안 좋았어요. 아까 말 한
 것 중에... 식사 준비를 하면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 해서요.
 그리고 할 일 하다가 부르면 빨리빨리 가야하는데, 늦으면 또 혼나고. 또
 식사 준비를 할 때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방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런 건
 중국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혼내셨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작
 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내가 일을 하면 남편이
 다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잘 도와줘요. 그런데 시어머니 있으면 남편한

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화 낼까봐. 이런 건 이해가 안 돼요. 남편도 시어머니 말을 아주 잘 들어요.(심층인터뷰대상자 6).

제주도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슬펐죠. (제주도에) 와 보니까 내일모레 돌아가실 시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급히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보일러도 안 되고, 화장실도 똥 싸면 딱 튀는 푸세식(재래식)이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때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다시 돌아가면 내 부모님은 어떡해요? 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 텐데. … 내 꿈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내가 이 모양 된 것을 생각하면 죽고 싶어져 … 바닷가에 몇 번이나 갔어요, 죽으려고. 혼자 울면서. 옛날에는 내가 옷도 예쁘게 입고, 얼굴도 예뻐했는데. 옛날에도 화장은 안 했어요. ‘화장 안 해도 예쁘다.’고 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내게 못 생겼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심층인터뷰대상자 1).

한국 문화권에서 고부갈등은 예로부터 존재했으며 부부갈등의 주요 요인이었다. 고부갈등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가사처리권이나 경제권 등 가정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권력구조형으로, 이 유형에서 갈등은 전통적으로 시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며느리가 복종을 하지 않아서 생긴다(고정자, 1989). 둘째 유형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상호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로 파생되는 역할구조형 갈등으로, 주로 시부모 부양에 관한 전통적인 역할을 며느리가 경시할 때 빚어진다(박현옥, 1989). 셋째 유형은 모자 사이의 관계가 특별해서 파생된 갈등으로 시어머니가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으로 착각하거나 며느리가 남편을 시모에게 빼앗긴 것으로 착각하면서 서로 공격적 혹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애정구조형이다(고정자·김갑숙, 1993). 넷째 유형은 생활환경의 차이나 세대차이, 그리고 성격차이 등 서로 살아온 생활의 배경이 달라 초래되는 생활구조형

같등이다. 이혜자(2003)에 의하면, 한국 가족에서는 상기의 4가지 유형의 고부갈등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역할구조형이고, 다음으로 애정구조형, 생활구조형, 권력구조형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 가족에서처럼 역할구조형 갈등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갈등 요인이 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그리고 각자가 지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가족에서와는 차이가 있다. 즉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가사 관리권에 대한 상호이해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언어소통이 불가능하다보니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가 아니라 고향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 대응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고부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셈이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 심층 인터뷰한 중국 조선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시어머니랑 얘기 할 때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 했죠. 쌍년이라 그러면 쌍년이라고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미친년’ 이러면 아, ‘미친년’ 그렇게 알고....(심층인터뷰대상자 1).

이 경우는 개인적인 성장환경이나 가치관보다도 더 확연한 국가 간 문화 차이, 서로 다른 언어나 생활양식 관습 등이 전반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하는 등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생활구조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 고부갈등은 권력구조형이나 애정구조형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는 시어머니의 압

도적 권력 소유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화가 낮은 며느리가 이에 대한 도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며느리와의 애정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애정을 빼앗겼다는 인식보다도 며느리가 한국문화와 언어를 잘 배워서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봉사를 잘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사는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공은숙, 2009: 131-132쪽).²²⁾ 따라서 시어머니들은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 며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통과례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식 혹은 제주도식 ‘고유문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생활이 많이 달라 스트레스가 많고 좀 답답해요. 우울 하구요. 한국음식은 전혀 먹지를 못하겠어요. 잘 안 맞아요. ... 시어머니나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너 어디 아프냐?’, ‘다른 중국 음식이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너 밖에서 뭐 먹고 왔구나, 너 배부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자주 가서 밥 먹고 그래요. ...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왔어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혼하는 건 싫어요.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시어머니하고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한국에 왔죠. 거기(중국)서 생활이 좋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 저, 매일 아침에 다섯 시 반에 일어나요. 시어머니가 그 때 일어나셔서 저도 그 때 일어나요. 시어머니는 일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밀가루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런데 제

22)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어머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가 아침에 중국식으로 밀가루 음식을 차려서 시어머니께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밀가루 음식 잘 먹지 않는다면서 대개 화를 내셨어요.(심층인터뷰대상자 4).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이나 제주도의 음식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모국과는 다른 부부관계에서 성역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족 내에서의 관습 등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 심층 인터뷰 한 여성결혼이민자들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오니깐 중국과 언어도 다르고, 습관, 관습도 다 달라요. 너무 달라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힘들었던 점은 ... 한국에는 규범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예의범절이 너무 복잡해요. 중국에서는 인사를 잘 안 해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꼬박꼬박 인사를 해야 해요. 이건 뭐 해야 하고, 이건 뭐 해야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은 항상 인사를 잘 해야 해요. 중국에선 그러지 않아요.(심층인터뷰대상자 5).

(몽골과 한국) 서로 풍습이 다르잖아요. 한국 풍습은, 특히 제주도는... 여기 촌(村) 같은 데서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것은 풍습 같은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제주도)는 좀 더 복잡한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몽골)는 좀 심하지 않아도 제주도는 좀 복잡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 따라가야지 뭐. 몽골에서는 맞벌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제주도에서는 있잖아요.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셔도 친정 부모님이 며칠씩 와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제사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몽골)는 ... 여기는 제사도 있고, 별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는 좀 자유롭기도 해요. (몽골에서는)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풍습이나 문화 같은 게 복잡하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저는 여기서 짧은 치마 입고 싶어도 여기서는 못 입잖아요. 우리나라(몽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살아도... 가슴까지 보이는 옷 입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 입으면, 옆에 사람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거 입으면 어떻게 하나?”고 얘기하고... 참 신경 쓸 것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심층인터뷰대상자 6).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의 좌절, 음식 및 주거양식과 남녀 역할이나 언어 적응에서의 어려움, 특히 아내·며느리의 문화나 언어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사회로의 이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 것을 더 중요시 하고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한국 것만을 강조하는 가족이나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에는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제주도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그리고 각자가 지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불평등한 부부관계에 처해 있다(장은주, 2000; 윤형숙, 2005; 설동훈, 2005; 김이선, 2006). 따라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정책의 양성 평등적, 문화 양립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 다양성과 상대방 문화의 존중 차원에서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성원들이 아내이자 며느리가 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

용하도록 하는 문화수용성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간, 고부간 가족갈등에 가족성원의 의무와 권리, 역할규정 인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 요소가 작용하지만, 문화적 차이 요소 자체를 가족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생존전략 속에서 동원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 가족행동의 내적 과정은 물론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해나가는 다수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 양상을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체로 제주도의 일반가족에서는 고부 간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만강도가 극히 낮아 한국의 전통가족에 비해 갈등이 심각하지 않으며 가정사를 부부간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김혜숙, 1999: 48-49쪽, 56쪽, 79쪽, 105-108쪽, 113쪽; 이창기, 1999: 290-291쪽).

이렇게 보면 제주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나 고부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적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서 제주도의 일반가족의 특징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글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제주도의 전형적인 가족형태와 그것의 변화 양상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 양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제주도와 다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 양상을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가족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제주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관계와 고부관계를 중심

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의 양상을 한국의 일반 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 속에서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둔 기술적 수준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의 양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초 작업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글은 문헌자료와 심층인터뷰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수집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이 글은 눈덩이표집에 의해 선정된 제주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족관계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이 글의 분석 결과를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일반으로 확대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제주도가족의 변화 양상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해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변화의 모습을 포착해내고 그 속에서 제주도의 일반 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특징을 비교해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 국제결혼으로 초래된 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를 주체로 한 이들의 일상적 경험과 실천에 밀착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지역 간 혹은 국가를 맥락으로 한 지역 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이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은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다가 근래에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경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공식적인 이민정책은 없지만 1970년대 이후 농촌지역에서 결혼적령기 여성의 숫자가 남성에 비해 적어지면서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결혼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였다. 일본 외국인정책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 비전과 시책을

갖고서 추진하다가 추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밟았다
는 점, 이렇게 해 2005년에 일본정부는 다문화공생을 정책의제로 채택하
였고 2006년 3월에는 ‘다문화공생 추진계획’²³⁾을 수립해 전국적으로 추
진해오고 있다는 점(김정진, 2010; 박동성, 2008)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국제결혼의 역사적 흐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그리
고 국제결혼으로 초래된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대
응 등 한국과 일본 양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다층위적이고 심층적인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3)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평등하게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생활해가는 것’을 말한다(佐竹眞明·Mary Angeline Da-anoy, 2006: 113-114쪽). 이 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다문화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생관계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 인권보장, 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국제교류협회를 설치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강기정·변미희(2009), 「다문화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제3호.
- 고정자(1989), 「한국 도시 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고정자·김갑숙(1993), 「고부관계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호.
- 공은숙(2009),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제18호, 한국노년학연구회.
- 권숙인(2009), 「일본의 '다민족·다문화화'와 일본연구」, 『일본연구논총』 제29호.
- 김민정(2007), 「한국가족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 연구』 제7권 제2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밀양(2004),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 김은미·김지현(2008), 「다인종·다민족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제42권 제2호.
- 김이선(2006),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동연구결과발표회자료집.
- 김정진(2010), 「국가별 다문화정책의 비교」, 『월간 복지동향』.
- 김진숙·권석만(2003),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 『심리과학』 제12권 제4호.
- 김현미(2006),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출판부.
- 김희주(2008), 「다문화가족문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제59호.

- 남인숙·장혼성(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제35호.
- 박동성(2008), 「일본 과소지역에서의 ‘국제가족’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야마가타현의 사례분석」, 『한국문화인류학』 제41권 제1호.
- 박미정·엄명용(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 박소영(2010), 「고부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8호.
- 박현옥(1989),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변미희·강기정(2010),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2호.
-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양옥경(2000), 「한국 가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호.
-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결혼이민자들: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서울: 선인.
-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2호.
- 이영분·양영심(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 이재경(2009),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제26권 제1호.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출판부.
-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5호.
- 이혜자(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 변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9호.
- 이효선(2009), 「한국 여성들의 삶의 이해를 위한 가족 패러다임의 재구성: 여성세대 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6권 제1호.
- 장은주(2000), 「문화적 차이와 인권 - 동아시아 맥락에서」, 『철학연구』 제49집 제1호.

- 장지혜(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호,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정천석·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09), 『2009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업무계획』.
- 제주특별자치도(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 제주특별자치도(20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 조정문·장상희(2009),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 최경숙(2006),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최금혜(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4권 제1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 최섯별·이명진·김재은(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한국사회학』 제37권 제5호.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보도자료 2010년 6월 11일자).
- 嘉本伊都子(2008), 『國際結婚論?!-現代編』, 法律文化社.
- 宿谷京子(1988), 『アジアから來た花嫁』, 明石書店.
- 佐竹眞明·Mary Angeline Da-anoy(2006), 『フィリピンー日本』國際結婚ー移住と多文化共生』, 東京: めこん.
- 竹下修子(2004), 『國際結婚の諸相』, 學文社.
- Bryant, C. and Conger, D.(1999), “Marital success and domains of social support in long-term relationships: Does the influence of network members ever en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 Bryant, C. Conger, D. and Meehan, J.(2001),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 Chang, C. Y., & Myers, J. E.(2003), “Cultural adaptation of the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 An assessment challenge.” *Measurement and*

-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4).
- Chou, P. H., Wang, H. H., Chiang, P., Lin, Y. R., Kang, C. W., & Lee, W. C.(2006), "The pregnancy and labor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 *Journal of Evidence-Based Nursing*, 2(4).
- Huang, W. J.(2005), "An Asian perspective on relationship and marriage education." *Family Process*. 44(2).
- Johns, Gavin and Hsui-hua Shen(2008), "International marria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trends and research emphases." *Citizenship Studies*. 12(1).
- Lee, M. Y. and Mjelde-Mossey, L.(2004), "Cultural dissonance among generations: a solution-focused approach with East Asian eld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4).
- Lu, Melody China-Wen(2005), "Commercially Arranged Marriage Migration: Case Studies of Cross-border Marriages in Taiwan."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12(2&3). Sage Publications.
- So, Christine(2006), "Asian Mail-Order Brides, the Threat of Global Capitalism, and the Rescue of the U.S. Nation-state." *Feminist Studies* 32(2).
- Willson, A., Shuey, K., and Elder, G. (2003),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to aging parents and in-law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4).

Abstract

Family Relationship Featur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Jeju Island

Yeum, Mi-Gyeong*

In this article, I pay attention to whether the feature of the typical family relation of Jeju Island appeared with the familie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live in Jeju Island. Subjects of this investigation have been selected from a number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operated by Jeju Island Migrant Workers' Center and Social Welfare Center of Seogwipo 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typical family figuration of Jeju Island has pointed out a marital relationship-centered family, and decision making between the married couple has high ratio decided in self-controlled way, and one nuclear family in the change in the Korean family who appears recently by a branch family custom's existing is typical family figuration from the past. But the family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found out that there is fixed distance with a typical family relation of 'Jeju Island family'. It's rather put in the patriarchal family-like family culture and the unfair marital relationship more than the general family like the Korean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 find out nationwide universalism is stronger than the regional particularity of Jeju Island in case of multi-cultural family like Jeju island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y.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y, family relationship,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marital relationship, patriarchal culture within family

교신 : 염미경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번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mail: mgyeum@jejunu.ac.kr 전화: 064-754-3246)

논문투고일 2011. 02. 22.

심사완료일 2011. 03. 22.

계재확정일 2011. 08. 17.